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선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3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상승선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3

上昇線

상모택 상승선 이

5-3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5 제3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32~34]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최승호, 마라도의 말 한 마리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9평은 잘 보셨는지요. 언매, 화작이 변수가 될 것 같고, 문학의 경우, '가오리 날아오르다'가 문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총평은 이승모 국어 유튜브에 올려두긴 했는데, 이미 분석 끝내고, 다시 나아가고 계시겠지요? 9평 보신 후, 꼭 기출을 다시 제대로 보시면서, 이 지문이 올해 수능에 처음 나왔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시를 선정했습니다. 가오리 날아오르다에 이은 후속 학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낯선 현대시 + 불친절한 〈보기〉 조합으로 과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기출에서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설은 〈보기〉가 시의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실전에 형식과 관련된 〈보기〉라든가 내용 설명이 불친절한 〈보기〉가 나오면 대처가 안 되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보기〉부터 읽든, 지문부터 읽든 그것은 본인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기〉의 내용이 친절한 것 같으니,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근원적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로 인한 슬픔을 경험한다. 이때 (가)의 화자는 자신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들과 자신을 같은 범주에 놓음으로써, (나)의 화자는 특정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냄으로써, 슬픔은 고결한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보기〉를 먼저 읽었으면, 일단 시의 맥락은 잡아야겠지요. (가)는 어차피 연계니까, 그리고 워낙 유명한 시라, 알 거고,(물론 연계 정리는 해드릴 겁니다.) (나)시가 낯선 현대시죠. 오늘 이 해설을 쓰는 이유가 되고요. (나) 시가 해석이 되든 말든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보셨다면 최소한 이 시가 어떤 시다! 라는 맥락은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가) 긍정적인 대상 = 자신(동일한 범주)

(나) 특정 대상 = 자신(동일시)

어쨌든, 슬픔은 고결한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쉽게 말해 슬픔이라는 건 아무나 느끼는 게 아냐. 내가 고결하기에 느끼는 거야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우선 (가)시 연계부터 털겠습니다.

(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세 번의 흰 바람벽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흰 바람벽이 있어'입니다. 바람벽이라는 게 중요할 겁니다. 내신 때 배운 학생들은 아마 스크린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말해 화자의 인식이 벽에 형상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벽입니다. 외로움, 쓸쓸함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늬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어 대굿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두 번째 흰 바람벽입니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지아비는 화자 자신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움, 그리고 단절감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어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세 번째 흰 바람벽입니다. 스쳐가는 이 글자들이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에서 '높고'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면 정말 그런 것이지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면 갑자기 외롭다는 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고결하고, 고고한 존재라서 어쩔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보기〉의 내용과도 맞닿습니다.(EBS 연계 작품이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알아 두시라는 거죠.) 즉, 굳이 이해해보면, 나는 지금 외롭고 쓸쓸한데, 사실 이건 내가 고결하고 고고한 존재라서 겪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이고, 하늘이 이 세상에 낼 때, 그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모두 그렇게 살게 한 거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즉 본인은 고결하며 하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이런 사랑과 슬픔 속에 살게 되었다는 인식이죠. 그리고 본인과 동일 범주에 있는 대상들을 나열합니다. 프랑시스 쨈,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같은 유명 시인들과 말이지요. 결국 이 시는 세 번의 바람벽을 통해, 외로움 → 그리움, 단절감 → 자기 위로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나)시가 중요합니다. 낯선 현대시죠. 처음 봐서 낯설긴 하지만 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나)
바람 센 날 말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망망대해, 멀리서 허공과 바다가 꽉 붙어, 서로 떨어지지 않는 수평선을 이루고 있었다.

제목 보자마자 마라도의 말 한 마리 = 화자 자신. 일단 이거 잡으면 좋죠. 특히 〈보기〉부터 읽은 학생은 자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의 인식을 말에 투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이랑 바다 보고 있나 봅니다.

연기나는 작은 배들이 가랑잎처럼 몇 척 지나가고, 말은 고개를 든 채 뭘 보고 있었던 것일까. 짐작건대 말은 발 디딜 수 없는 드넓은 수렁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외딴 섬에 갇혀 있다는 것쯤은 그 큰 말대가리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말이 외딴 섬, 마라도겠지요. 여기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단절감을 느끼니까 말에 투영하는 것이겠지요.

내가 말띠여서 그랬는지 나는 말의 슬픔을 슬퍼했던 것 같다. 하늘의 다락에서 떨어진 듯한 말의 크고 순한 눈을 보자 머저리처럼 가슴이 미어졌던 것이다.

드립을 시전합니다. 내가 말띠여서 말의 슬픔을 슬퍼했대요. 쉽게 말해 자신이 슬픈 겁니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합니다.

그 말의 커다란 눈, 바람에 흩날리던 멋진 말갈기, 기품을 잃지 않고 있던 그 말의 고독, 그 말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듯하다.

네. 〈보기〉의 어떤 맥락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슬픔을 느낀다는 것. 곧 기품있고 고결한 존재라는 얘기겠지요. 실전에서는 이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 최승호, 「마라도의 말 한 마리」 –

바로 문제 풀러 갑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낯선 현대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32.

'맥락' = 그런 시 아냐~ 이렇게 쳐버리면 됩니다. 물론 돌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그런 시가 아닌 걸 어쩌겠어요.

① ㉠에서는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② ㉡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여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재 상황의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④ ㉣에서는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 (가) 시는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지도 않고,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시도 아닙니다. ①, ② 딸깍. (나) 시에, 현재 상황의 원인이 나오던가요. 또,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심정하고도 관련이 없는 시입니다. ③, ④ 딸깍. 이렇게 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지문 안 돌아가고 그냥 지웠어요.

⑤ ㉤에서는 대상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너무 확실하죠. 말의 기품있는 외양을 통해 슬픔을 느끼는 고결한 대상에 대해 나타내고 있으니 맞습니다.

33.

연계 공부 안 되어 있으면 답의 선명도가 확실히 떨어질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연계 공부 한 사람은 바로 답이 보이고요. 아닌 사람들은 솔직히 답이 안 보일 여지가 좀 있지요. 연계 공부 확인할 겸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선지만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② [B]에 제시된 '가난한 늙은 어머니'는 [C]에 제시된 ~~'어린것'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연민을 자아낸다.

- 이게 답으로 한 번에 보이느냐입니다. 사실 연계 공부 안 했으면, 화자가 어딘가 떠나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고, 지아비가 본인이고, 어린 것이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문학 경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주관이 들어가기 쉽죠. 그러면 가난한 늙은 어머니도 연민이고, 어린 것 역시 자기 자식이니까 두고 왔다는 측면에서 연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에서 지아비는 화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즉 어린 것은 본인의 자식이 아닙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 어린 것에게 연민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③ [C]의 '어여쁜 사람'은, 화자에게 [E]의 '사랑과 슬픔'을 유발한 대상 중 하나이다.

- ②번의 해설이 이해가 되면 바로 납득이 되는 선지입니다. 어여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나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슬픔을 유발하겠지요.

④ [D]에서 '내 가슴'이 '가득 찬다'는 것은 [A]~[C]에서 언급된 대상이 화자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D]에서 내 가슴은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찬다고 했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이 맞지요.

⑤ [E]에 '이런 글자들'이 나타난 것은 [D]에 제시된 '이러한 글자들'을 수용한 화자의 내면을 암시한다.

- 네. 주제네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아까도 '높고'에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 때문에 내가 하늘이 아끼고, 고결한 대상이라 이렇게 슬프게 만든 것이라는 인식이 가능한 겁니다. 본인이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슬픔을 수용하고 있죠.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34.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답 선지가 선명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를 뭉개거나 〈보기〉를 뭉개면 답 선지가 꽤나 그럴듯해집니다.

② (가)에서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 등은, 자신과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대상을 상기하며 고독감을 ~~떨쳐 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잘 냈지요. 그러니까 저처럼 검토도 보고 출제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흰 바람벽에 있어라는 시에서 답 선지를 내려면 무조건 [E]에서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답이 나오면, 역시 중요한 걸 물어봐 주네! 하고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왜요? 주제니까요. 결국 이 시는 본인이 이렇게 힘든 것은 사실 오히려 하늘이 아끼는 대상이고 내가 고결해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거야! 라는 화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기〉에서도 자신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과 자신을 같은 범주에 넣는다고 했지요. 단, 슬픔이라는 감정은 고결한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시이므로, 자신이 현재 겪는 고독감을 떨쳐내려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오히려 고독이나 슬픔을 '내가 귀한 존재이고 하늘이 아끼는 존재니까 겪는 것'이라고 인식하며 이 감정을 수용하려는 태도이지, 이걸 떨쳐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는 아니지요. 그러니, 둘 중 하나는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문 맥락을 잘 잡든가, 아니면 〈보기〉의 의도를 잘 파악하든가. 이게 곧 선명도가 됩니다.

③ (나)에서 '외딴 섬에 갇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화자가 근원적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의 한계를 대상에 투영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④ (나)에서 '내가 말띠'라는 정보를 언급한 것은, 대상에 대해 사유한 내용이 곧 화자 자신에 대한 사유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④는 결국 마라도의 말 한 마리와 화자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맥락만 잡으면 당연한 선지가 됩니다.

⑤ (가)에서 '하늘'이 '귀해'한다는 표현과 (나)에서 '하늘의 다락에서 떨어진 듯'하다는 표현은 모두, 슬픔을 고결한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그려 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선지는 문장입니다. 선지를 이해해보세요. 하늘이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 하늘의 다락에서 떨어진 듯하다는 말의 눈. 정확히는 슬퍼하는 눈이겠지요. '하늘'이라는 말이 보인다면, (가)의 화자는 스스로를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고, (나) 역시 말의 눈을 하늘에서 떨어진 듯하다고 하니까, 고결한 존재라는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이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기에(고결하기에) 이렇게 슬픔을 겪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나) 역시 말이 슬픔을 느끼는 건(사실 본인의 정서를 투영한 것이지만) 품위 있고 고결한 존재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말을 길게 했지만 선지의 '하늘'이라는 단어만 보인다면 바로 당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승선

상모택 이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